

<2018 서울시 7급 채용 가답안 B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㉔	㉓	㉓	㉒	㉑	㉒	㉔	㉑	㉔	㉑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㉓	㉔	㉔	㉓	㉒	㉒	㉑	㉓	㉓	㉒

1.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ㄱ. 10월 유신
		ㄴ. 100억 불 수출
		ㄷ. 1000불 소득

-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②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시행되었다.
- ③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직되었다.
- ④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보기는 10월 유신(1972) 이후 유신 체제 시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신 체제 시기인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답 해설]

-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다.(임기 6년)
- ② 박정희 정부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 ③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 하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투옥시켰다.

[오답 피하기]

- ④ 한·일 협정은 유신 체제 선포(1972) 이전인 1965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으나 식민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보기>는 개항 이후 경제 상황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ㄴ. 일본인 재정 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ㄷ.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ㄹ.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③

[정답 해설]

- ㄹ. 1876년 체결된 조일 수호조규부록에 의해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이 설정되고(간행이정 10리) 이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거류지 무역)
- ㄱ. 1882년 8월 체결된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 ㄷ. 대한천일은행은 대한 제국 시기인 1899년에 설립되었다.
- ㄴ. 메가타는 1905년 화폐 조례를 공포하여 국고 출납 업무를 제일 은행에 위임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다. 백동화는 질에 따라 갑, 을, 병으로 나뉘었는데, 병종은 교환에서 제외되었다. 화폐 개혁으로 조선 상인이나 조선인이 은행하던 은행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3.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제13대 대통령 선거
 ㄴ. 4·13 호헌 조치 발표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ㄹ.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ㄷ - ㄹ - ㄴ - ㄱ

정답 ③

[정답 해설]

-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1987년 1월에 일어났다.
 ㄴ. 4·13 호헌 조치는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군사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고 선언한 조치이다.
 ㄹ.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1987년 5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사회운동단체이다.
 ㄱ. 제 13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이다. 이 선거에서는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4.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②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총독부로 귀속시켰다.
 ③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④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켰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①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으나 이보다 많은 양을 일제가 수탈해가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생산되는 조,

수수, 콩 등 값싼 잡곡을 들여와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 ③ 산미증식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뿐 아니라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적 수탈에 시달렸다.
 ④ 산미증식계획 과정에서 일부 대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켰으며,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토지를 넓혀 가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②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토지 조사 사업 실시의 결과이다.

5. 조선초기 대외관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뒤, 일본의 사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견문록 『해동제국기』를 성종2년(1471)에 편찬하였다.
 ②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청해 오자, 벼슬을 내려 조선의 신하로 삼고, 부산, 인천, 원산 3포를 열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③ 태종은 요동 수복을 포기하지 않고, 삼남지방의 향리와 부민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켜 압록강 이남지역의 개발을 추진했다.
 ④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만을 구사하여, 국경지역에서 무역을 허용하고, 조공과 귀화를 권장하였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1471년(성종 2) 왕명을 받아 그가 관찰한 일본의 정치, 사회, 풍속,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한 책(견문기)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대마도주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게 무역을 허용한 3포는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를 말한다.(1426년 3포 개항) 부산, 인천, 원산은 강화도 조약 체결(1876) 이후 개항한 항구들이다.
 ③ 태조 때는 요동 지역을 회복하려는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여 명과 갈등을 빚었지만, 태종 이후에는 명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요동 수복을 포기하였다.
 ④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회유책)과 함께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강정책으로는 세종 때 이루어진 4군 6진 개척을 들 수 있다.

6.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보기>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찍개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의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공주 석장리 유적
- ② 연천 전곡리 유적
- ③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 ④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연천 전곡리는 한반도 구석기 유적지의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이 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유물로 평가받는다.

[오답 피하기]

- ①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유적 중 남한 최초로 발굴이 이루어져(1964)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증명한 곳이다.
- ③ 청원 두루봉 동굴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 홍수아이라고 불리는 인골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
- ④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유적은 남한 최초의 인류 화석이 발견된 곳으로, 약 5만 년 전, 슬기사람의 머리뼈가 출토되었다.

7.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錢幣)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한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 ① 건원중보 ② 상평통보
- ③ 조선통보 ④ 해동통보

정답 ④

[자료 분석]

주전도감, 활구 등의 내용을 통해 고려 숙종 때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주전도감은 고려 숙종 때 화폐주조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며, 활구는 병 모양의 은화로, 숙종 때 제작되었다.

[정답 해설]

- ④ 해동통보는 1102년(숙종 7)에 주조, 유통된 동전(銅錢)이다. 숙종 때는 이외에도 해동중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활구(은병) 등의 화폐가 제작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주조된 한국 최초의 화폐이다.
- ②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사용된 화폐이다.
- ③ 조선통보는 조선 전기 세종 대에 주조된 화폐이다.(조선 후기 인조 때 팔분서 조선통보가 제작되기도 함.)

8.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찌다 글을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樵童)·목수(牧豎)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중종실록』

- ①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 ②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 ③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 ④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훈도, 교수 등의 표현을 통해 (가)에 해당하는 기관이 향교임을 알 수 있다. 향교는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해 교육시켰다.

[정답 해설]

- ①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향교는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도 입학할 수 있었으나 천민은 입학할 수 없었다.
- ③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지던 곳은 서원이다. 향교는 국립 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이 이루어졌다.
- ④ 향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소과 초시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문과(대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곳은 성균관이다.

9.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정답 해설]

- ㄷ. 신라는 왜와의 교류가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왜에 전해주었다. 신라의 기술로 축조된 저수지에는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장은 왜에 가서 종이, 먹, 땃돌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오답 피하기]

- ㄱ.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은 노리사치계(성왕 때)이다. 아직기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유사해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10.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중략)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 충무공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다.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 ②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③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
-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보기는 숙종의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1704년(숙종 30)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지은 사당이다.

[정답 해설]

- ①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환국(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을 단행하였다. 이는 붕당 간의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일당 전제화의 배경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수원 화성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 ③ 명의 요청을 받아 중국에 원병(강홍립)을 파견한 것은 광해군이다.
- ④ 균역법은 1년에 2필씩 납부하던 군포를 1필로 줄여준 것으로, 영조 대에 실시되었다.

11.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너덕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 ④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군포를 1필로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영조 때 제정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 영조는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포론은 실시되지 못했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서 걷는 균역법으로 귀결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논쟁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②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 ④ 자휼전칙(字恤典則)은 1783년(정조 7) 정조의 명에 의하여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방법을 규정한 법령이다.

12.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 제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②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③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④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시, 상호 통보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이다. 따라서 갑신정변(1884)의 결과를 찾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 ④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게 미리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1885)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임오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② 수신사는 1876년에 1차 수신사로 김기수,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1882년에 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파견되었다. 조사시찰단은 갑신정변 전인 1881년에 파견되었다.
 ④ 영남만인소는 갑신정변 전인 1881년에 올려졌다.

13.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추진되었다.
- ㄴ. 좌·우 정치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하였다.
- ㄷ.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였다.
- ㄹ.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정답 해설]

- ㄷ.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분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남북 협상을 제의(1948. 2)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1948년 4월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김구와 김규식 등이 참여하였다.
 ㄹ. 남북 협상의 결과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무렵 이미 단독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으며,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남북 협상이 단독 정부의 성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답 피하기]

- ㄱ.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 3월에 개최되었고 2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7년 5월에 개최되었다. 따라서 남북 협상 이전의 일이다.
 ㄴ. 좌우 합작 7원칙은 남북 협상 이전인 1946년 10월에 발표되었다.

16. <보기>의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鬼幻)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① (가)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가)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나)는 유득공의 발해고이다.

[정답 해설]

- ①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③ 유득공의 《발해고》는 사료를 통한 실증을 바탕으로 발해사를 한국사로 편입시켰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유득공의 주장은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통용되어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南北國)’이라 지칭하며,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 ④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으며, 남(南)의 신라와 북(北)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남북국 용어 처음 사용)

[오답 피하기]

- ②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공집》에 실려 있는 《동명

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장편 서사시)이다.

17.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정의 사대부들이 걸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검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 『고려사』

- ①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으며,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주었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검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료이다. 따라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① 과전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의 수조지로 편성한 뒤 수조권을 각 관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문·무 양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을 지급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료들은 정 1품(品)부터 중 9품에 이르기까지 18과(科)로 나뉘어 각각 다른 규모의 과전을 지급받게 되었다. 가장 높은 1과(科)의 관료는 150결을, 가장 낮은 18과의 관료는 10결을 분급 받았다. 이때의 과전은 경기 지역에 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지급한 것은 경정 전시과이다.
- ③ 세조 때의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지급한 것은 시정 전시과이고,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지급한 것은 개정 전시과이다.

18.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이 나타났다.
- ②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 ③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 했다.
- ④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① 문벌 귀족은 비슷한 부류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 ② 상층 향리(향리직의 우두머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 ④ 고려 시대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는데, 상대적으로 천한 일이었다. 이렇게 신분은 양인이나 직업이 천한 사람들을 신량역천 계층이라고도 불렀다.

[오답 피하기]

- ③ 궁궐의 잡무를 담당하는 것은 남반이다. 서리는 중앙 관청의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맡았다.

19.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문이다.

[정답 해설]

- ①, ②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미·소 양군의 통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외무 장관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를 실시가 결의되자, 이를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③ 알타회담(1945. 2)에 대한 설명이다.

20. <보기>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 하니 성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 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좌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왔다.

- 『삼국유사』

- 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 ②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 ③ 동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 ④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최은함이 관음보살전에 기도한 후 최승로를 낳게 된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따라서 밑줄 친 아들은 최승로이다.

[정답 해설]

- ②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김대성 ③ 도선 ④ 최언위에 대한 설명이다.